

민주 당비 대납 차단 '경선용 당원' 막는다

중앙당, 모집 과열 양상에 관리 대책 발표 본인 인증 의무화... 대납 의심사례 즉각 신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당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당비 대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역(광주일보 22일자 4면)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이 강도 높은 당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징인이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해 당내 경선을 왜곡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원이 도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납 및 체납 당비 처리기준 안내' 공문을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 공문에서 당비 대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각 지역위원회에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당원이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체납 당비를 납부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말린 당비를 낼 경우엔 본인 명의 계좌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당의 계좌로 입금 할 때는 입금자명과 지역, 생년월일을 기재한 뒤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는 특징인이 기존 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을 이끌어가는 '꼼수'를 막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구 당원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타인 명의 입금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간주해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를 통한 타인 명의 납부 및 타인 계좌 명의도용 납부도 금지된다.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당비 납부' 규정을 약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당비 선납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못박는 규정을 신설, 특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한 뒤 당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 가령 기존에는 6개월치 당비만을 선납하면 됐지만 이를 12개월로 늘려 당비

대납의 부담이 커졌고, 선납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후 신분증을 지참해 시·도당 방문 후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각 시·도당이 당비 대납의 심 사리가 발생하면 즉각 중앙당에 이를 신고하고 당비 대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권리당원 관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했다. 권리행사를 위해서 이로부터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에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입당·당비 납부 시 기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외교부 1차관 조세영·통일부 차관 서호

(광주 출신)

靑 차관급 9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58·외무고시 18회) 국립외교원장,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52·행정고시 36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통일부 차관에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민(54·행시 33회)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56·기술고시 26회)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차관에 김경욱(53·행시 33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계조(55·기시 22회)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58) 한국화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에 손병두(55·행시 33회) 금융위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9명에 대한 대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도시관광·관광교통위원회 등 2명의 차관급 인사를 함께 발표한 지난 3·8 개각 이후로는 76일 만이다. 이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2년의 정책 드라이브를 토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광주 출신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이 통일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됐다. 서 차관은 남북관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담기획부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 부내 중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자유한국당 강원현장최고위원회의

일시 : 2019. 5. 23(목) 14:30 ▶ 장소 : 토성농협본점



"도대체 언제 집에 간단 말입니까" 23일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본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박자 쉬어가는 바른미래 내홍

원내정책회의, 막말 비판 여론에 공방 자제

막장으로 치달던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23일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와 연일 전면전에 나섰던 바른정당계가 전날 하대경 최고위원의 '막말' 여파로 일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당 내홍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 반대세력이 주축이 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대경 최고위원은 전날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을 다시 읽으며 제차

고개를 숙였다. 오 원내대표와 지상욱 원내부대표 등도 국회 정상화, 정책 이슈와 관련한 공개 발언만 했을 뿐 당내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인사들도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휴전'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하대경·이준석·권은희)의 '23일 오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당 지도부가 다시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소집 시기가 나날짜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내일 오전에 임시 최고위원회의 형태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신환 "국회 정상화 문제 담판으로 풀자"

여야 선결조건 이견 ... 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 제의

여야가 2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기류에 빠졌다.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

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당과의 대립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날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석 정책위의장도 "경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을 잡을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 시장연설(27일), 상임위원장 교체에 관한 본회의(30일) 등의 시간표를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에 고삐를 죄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사실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 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이상 국회 정상화 현상이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 당 내부의 백가쟁명식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없으니 전권을 가진 원내대표 간담만으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명 마감

'민주당 해산'은 32만명...靑 동시 답변할 듯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다.

지난달 2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이날 22일 밤 12시를 기해 한 달을 채웠으며, 23일부터는 '만료된 청원'으로 분류됐다. 최종 참여 인원은 183만1900명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 기록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며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당 해

산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함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청구 청원인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32만6518명이 동참한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29일 마감된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참고 사무실 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분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김경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굴리 대지 17518㎡ 주택 2점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점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출몰 7억2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 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담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영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신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김경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층일부주택지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1만㎡ 시찰건물최고 납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텔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병 2거실금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빌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